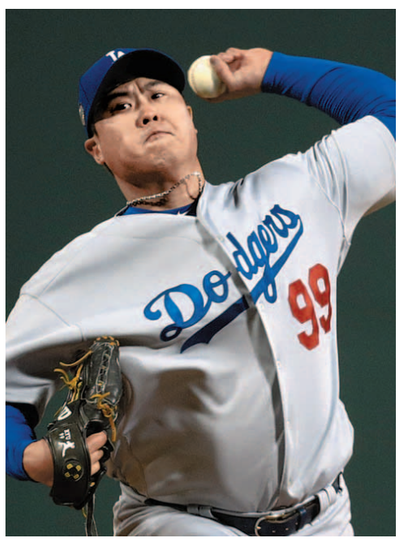
MLB닷컴, 30개 구단 최고 FA 선정



류현진

“다저스맨 류현진이 가장 매력적인 FA”

“전체 리스트에서 가장 매력적인 경우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3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별 최고의 프리에이전트(FA) 선수를 선정했다.

LA 다저스에서는 류현진(32)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획득했지만, 쿼리파잉오퍼를 수락하면서 다저스에서 한 시즌을 더 뛰게 됐다. 1년 1790만 달러(약 217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도장을 찍으며 다시 한 번 푸른색 유니폼을 입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올 시즌 25경기에서 12승 5패 평균자책점 2.35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을 노리고 있다. 최근 연달은 부진으로 메이저리그 유일의 1점대 평균자책점은 무너졌지만, 미국 진출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는 여전히 이견이 없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 모두 14승을 거두면서 성공적으로 빅리그에 정착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15년 어깨 수술, 2016년 팔꿈치 수술까지 받으면서 건강 상태에 많은 의문을 남겼다.

올 시즌 완벽한 부활로 자신에게 달린 물음표를 확실하게 지웠다. 이에 MLB닷컴은 “전체 리스트(예비 FA)에서 가장 매력적인 경우다. 다만 부상 이력과 올 시즌 사이영상 수상 가능성이라는 대목이 서로 충돌한다”고 평가한 뒤 “어떤 팀이 류현진에게 기꺼이 기회를 줄지 궁금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류현진과 함께 언급된 선수로는 이전 팀 동료 야시엘 푸이그(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비롯해 게릿 콜(휴스턴 애스트로스), 헌터 펜스(텍사스 레인저스), 매디슨 범가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이었다.

한편 류현진은 5일 오전 11시10분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시즌 13승에 재도전한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KBS 뉴스9’ 앵커된 지 10년 되는 해…‘채널A 뉴스 앵커’로 돌아온 조수빈 아나운서

“인연 많은 채널A… 신입때의 열정이 새록”

KBS 메인 뉴스프로그램 ‘KBS 뉴스9’의 앵커로 친숙한 조수빈 아나운서(38). 그는 올해 4월 KBS에서 퇴사하며 “더 이상 뉴스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프리랜서로서는 이례적으로 또 다른 방송사의 뉴스를 맡게 됐다. 무대는 채널A 주말 ‘뉴스A’이다. 28일부터 앵커석에 앉는 그를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조 아나운서는 “이전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며 각오를 다졌다.

조수빈 KBS 전 아나운서가 28일부터 채널A 주말 ‘뉴스A’의 새 앵커로 나선다. “시청자의 가치판단을 돕는 길잡이로서 앵커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진제공 | 채널A

KBS 입사 전 동아일보 인턴기자
그때의 경험이 앵커 활동 자양분
14년간 쌓은 노하우 후배와 공유

도전 위해 선택한 프리랜서의 길
드라마 출연 제의도 환영입니다

CHANNEL A

● “다시 신입의 열정으로”

조수빈 아나운서는 채널A를 복귀 무대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나와 인연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KBS 입사 전인 2004년 여름, 현재 채널A 본사가 자리 잡은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 인턴 기자로 일한 경험이다.

“인턴 1기였다. 첫 기수여서인지 단발성 인턴임에도 모든 수습 과정을 거쳤다. 경찰서에서 먹고 자며 취재했다. 부검 참관도 했다. 그때 뉴스의 기본을 배웠다. 짧았지만 현장 취재 경험이 앵커 활동에 확실히 큰 힘이 됐다.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어른으로 성장하게 한 ‘첫 발판’과도 다름없다.”

이제 이 건물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당시의 긴장감과 열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고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이 뉴스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 하자”는 사명감도 새롭게 갖게 됐다.

“‘KBS 뉴스9’ 앵커가 된 지 10주년이 되는 올해 채널A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아 기쁘게 생각한다. 앵커를 막 시작한 20대 무렵엔 ‘역시 연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결혼과 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거친 덕분에 한편으론 더 자신감이 생긴다. 또 14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들과 공유하며 작게나마 여성 앵커의 역할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싶다.”

● “유명함보다는 ‘의미’를”

조수빈 아나운서는 KBS 퇴사 이후 5개월 동안 짧은 휴식기를 보냈다. 뉴스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과거에는 하기 힘들었던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소박한 여유를 누렸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깨달은 “삶과 일의 균형점”이 앞으로 활동에 큰 자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유명해지기보다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KBS 재직 시절부터 해온 목소리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한 만큼 다양한 활동도 하고 싶다. 시사 예능프로그램 장르도 좋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 마음만 맞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고 있다. 아! 저 연기도 곧잘 한다. 드라마 출연 제의도 ‘환영’이다. 하하하!”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새 무대가 된 ‘뉴스A’에서도 “좋은 동료들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앵커로서 시청자가 가치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잘 해내겠다”며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조수빈

▲1981년 3월28일생 ▲2005년 서울대 언어학과 졸업 ▲2005년 KBS 31기 공채 아나운서 입사 ▲2008년 KBS 2TV ‘6 뉴스타임’ ▲2008년 KBS 1TV ‘뉴스9’ ▲이후 KBS 1TV ‘뉴스토크’ ‘930뉴스’ 등 진행 ▲2015년 KBS 1TV ‘우리말 겨루기’ ▲2018년 KBS 2TV ‘그녀들의 여유만만’ ▲2019년 4월 KBS 퇴사

윤태진 아나운서는 주중 스포츠뉴스 진행

윤태진 아나

채널A의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A’가 23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젊고 빠른 뉴스’를 목표로 삼아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다양한 코너를 선보인다.

채널A는 3일 “매일 저녁 7시30분에 기존보다 10분 늘어난 70분 분량의 ‘뉴스A’를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이에 따른 시청자 생활패턴 변화에 발맞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바뀌는 ‘뉴스A’의 평일 앵커는 동정민 채널A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과 여인선 사회부 기자가 맡는다. ‘김진의 돌직구쇼’로 이름을 알린 김진 기자는 ‘김진이 간다’란 새 코너를 맡아 먹거리에 숨겨진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의 ‘여랑야랑’ 코너도 신설된다.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청와대, 국회 등을 취재하며 ‘달콤 쌉싸래한 정치’ 칼럼으로 독자와 소통해온 이 기자는 매일 각종 정치 이슈에 얽힌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공개한다. 법조팀 성혜란 기자의 ‘팩트맨’ 코너도 시청자를 새롭게 만난다.

채널A는 ‘스타 진행자’들을 적극 기용해 시청자와 거리감을 더욱 좁힌다는 목표도 세웠다. 주말 ‘뉴스A’의 조수빈 아나운서와 주중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는 KBS N스포츠 ‘아이러브 베이스볼’ 출신 윤태진 아나운서가 주인공이다.

유지혜 기자

도쿄올림픽때 ‘욱일기’를 허용하겠다고?

전 세계 침략한 군국주의의 상징
도쿄올림픽 조직위 “막지 않겠다”
AFC 등 국제대회선 엄격히 금지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는 스포츠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도무지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욱일승천기(욱일기)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개막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3일 SBS의 취재 및 보도를 통해 2020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기간 욱일기의 사용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욱일기가 광범위하게 이미 사용돼 왔고, 어떠한 정치적 의미도 담지 않아 경기장 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조직위가 내세운 이유다.

욱일기 문양을 이용한 유니폼과 기념품, 페이스페인팅, 깃발 응원까지 그저 지켜봐야만 할 입장이 된 국내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욱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 세계를 침략한 과거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하켄크로이츠(나치 문양)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리낌없이 욱일기를 사용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도쿄올림픽조직위에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일본은 귀를 닫고 오직 ‘마이웨이’를 외칠 뿐이다.

유일한 길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만 서구에서는 욱일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걱정스럽다. IOC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금지한 국제축구연맹(FIFA)도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에서 일본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욱일기를 사용하다가 비판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다.

반면 아시아축구연맹(AFC)은 AFC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대회에서 일부 관중의 욱일기 응원전을 차단하지 못한 일본 J리그 클럽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나름 엄격하게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한편 도쿄올림픽조직위는 방사능 유출 우려가 남아있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올림픽 선수촌 음식준비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참가 예정국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